



##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 체육교과의 선택 과목 확장에 대한 사례연구

이의재<sup>1</sup>

---

### 《 요 약 》

---

본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체육교과의 선택과목 확장 운영을 위한 체육 교사의 노력을 바탕으로 선택과목 확장을 위한 과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체육 교과를 확장 운영하게 될 A고등학교를 연구 대상 학교로 선정하였고, 해당 학교에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교사 4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귀납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1. 학교의 상황 이해하기’, ‘2. 체육 교과의 영향력 키워나가기’, ‘3. 체육 교과를 선택과목으로 넣기 위한 발버둥’, ‘4. 못이룬 확장의 꿈을 후배교사와 함께 실천하기’라는 주제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체육교과의 확장을 위한 체육 교사들의 관심과 노력’, ‘고교학점제의 기회를 발판으로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 보장하기’라는 주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체육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도 학생들이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 고교학점제, 체육교과, 선택과목, 체육 교사

---

---

1. 서원대학교 체육교육과 조교수, [pelej@scowon.ac.kr](mailto:pelej@scowon.ac.kr)

## I. 서론

2025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이미 2023년부터 경기도 지역 이외에 연구 시범 학교, 선도학교 등의 명칭으로 먼저 운영되는 학교들이 있지만 25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김영은, 허예지, 백경선, 2023). 고교학점제의 의미를 살펴보면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교육부, 2021; 안영은, 노혜림, 이수민, 양성관, 2023)를 의미한다.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희망하는 과목들을 선택하여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학생 중심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정말 학생들이 수강하길 희망하는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견들도 존재한다(김성천, 2021). 이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이 있고 수강을 희망하는 과목의 경우에는 문제 되지 않지만, 희망 학생이 적은 과목이나 도시가 아닌 농촌지역에서 소규모 교과목의 강사, 교사들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있다(이상은, 장덕호, 2019).

그럼에도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과목을 수강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교육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연구(김영은, 허예지, 백경선, 2023; 이경진, 박창언, 2020; 이상은, 장덕호, 2019)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김동욱, 2019; 김은미, 임영근, 이순범, 2024; 이광우, 2018; 이상은, 백선희, 2019)도 수행되어 왔다. 또한 고교학점제 운영 및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진 상황이다(김성천, 2021; 홍후조, 2018). 마지막으로 외국의 고교학점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고교학점제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도 수행 되었다(임유나, 2019; 조보경, 김진숙, 이민형, 2021).

이처럼 고교학점제의 총괄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들과 학생, 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의 효과와 가능성에 관한 연구들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각 교과목 차원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공교육에서 진로 진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체육 교과목과 관련된 연구는 더욱 부족하다. 공교육에서 체육과 관련된 진로 진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체육 관련 진학지도는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김재호, 최대혁, 이의재, 2020; 이혜란, 정용철, 이의재; 2023).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기 이전 체육 중점 학교라는 이름으로 체육과 관련된 적성 및 흥미가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

이 되는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추가로 체육교과를 이수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이는 일부 학교에서만 운영되는 내용이다(유창완, 2020).

이러한 체육 중점 학교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체육교과에 관련된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이규일, 오정훈, 천항욱, 2020; 이창현, 오정훈, 김택진, 이규일, 2018). 또한 체육 중점학교와 유사한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학교, 거점학교, 교육과정 클러스터 등의 명칭으로 체육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사업들을 통해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다(고정길, 2024; 유창완, 2021; 이의재, 2019; 장기영, 임유환, 최영래, 2024). 이처럼 고교학점제 이전 체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일부 이루어지면서 공 교육 내에서 체육과 관련된 흥미와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과정 운영의 가능성들을 탐색하고 확인할 수 있었기에 2025년부터 실시되는 고교 학점제 안에서도 체육교과와 관련된 과목들을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각급학교 안에서는 교원 수급과 관련하여 교과간의 시수 증감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존재한다. 그렇기에 학생들이 원한다고해서 모든 선택권을 열어놓고 운영할 수 없는게 현장의 상황이다(이상은, 장덕호, 2019).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체육과 관련된 진로를 준비하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체육과 관련된 과목들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체육 교사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정길, 2024; 이의재,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을 기점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더욱 중요시 여기지는 상황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체육교과의 선택과목 확장 운영을 위하여 어떠한 과정이 이루어지는가를 탐색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6학기 동안 기본적으로 들어야 할 7개의 선택과목 이외에 추가적으로 선택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체육 교사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탐색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과목을 추가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에 직면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목적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체육교과의 선택과목 확장 운영을 위한 과정은 어떠한지를 탐색하는 데 있고,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체육교과의 선택과목 확장을 위해 체육 교사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연구 문제 2. 체육교과의 선택과목 확장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참여자 및 연구 대상 학교

본 연구의 목적인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체육교과의 선택과목 확장 운영에 대한 사례 연구로서 연구에 부합하기 위한 연구 참여자를 유목적 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총 4명 선정하였다. 주 제보자인 A고등학교에 2021년 3월~2024년 2월에 근무했던 이00 교사와 보조제보자 3명의 교사를 연구의 진행을 위해 섭외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 학교에 대한 정보도 다음과 같이 수집하였다.

주 제보자인 체육 교사 이00은 2008년부터 체육 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A고등학교에서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근무하였다. A 고등학교 근무 이전에도 관내 B 고등학교에서 5년간 근무하며 진학지도 및 선택과목 편성 운영에 대한 역량이 우수한 교사이다. 또한 스포츠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으며, 학교체육, 체육 진로 진학, 학교스포츠클럽, 운동부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2024년 2월 이후 배00 교사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며 A 고등학교를 떠났다.

보조제보자 배00 교사는 24년 3월부터 A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교직 경력 8년 차로서 이전에는 C고등학교에서 4년간 근무하며 3학년 담임, 운동부 등을 경험하고 A 고등학교로 옮기게 되었다. 이00 교사의 추천으로 23년 겨울 초빙교사제에 지원하여 24년부터 A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이00 교사의 업무를 대부분 인수·인계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보조제보자 김00 교사는 2021년 A고등학교에 부임하였고 21년부터 교무기획부장을 맡아 학교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체육 교사로서 차분하고 꼼꼼한 업무 처리로 많은 선생님들에게 인정받고 있으며 학교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리자들과 부장 교사, 담임교사들의 중간에서 중간 관리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체육 교사이다. 교직 경험은 20년이 넘는 경력 교사이다.

보조제보자 박00 교사는 2020년 A고등학교에 부임한 이후 2021년부터 교육과정 부장을 맡아 학생들의 선택과목 운영 및 주문형 강좌, 교육과정 클러스터 등의 운영을 맡고 있다. 교직 경력은 19년이며,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경험한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가이다. 주 제보자인 이00 교사와 많은 소통을 하며 체육 교과의 선택과목 확장을 위해 협조를 해주었고, 결과적으로 2025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선택과목을 추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연구 대상 학교로서 경기도 G시에 위치한 A고등학교는 1994년 개교하였으며 2012년 과학중점 학교로 지정되어 과학교육을 특성화하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이다. 과거 운동부가 창설되었다가 해체되었으며, 2003년 또 다른 운동부가 창단되어 2024년 현재 매년 전국 체전에서 입상

하고, 전국 대회에서 수많은 입상을 하는 등의 뛰어난 실적을 내고 있다. G시에서는 선호하는 학교 중 하나이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도 주변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 높은 편이다. 매년 15~20명 가량의 학생들이 체육 계열 관련 학과를 진학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으며, 과거 2010년 후반 체대 입시반을 운영하였지만 체육 교사들의 인사이동에 따라 2021년에는 체대 입시반이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 2.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은 주 제보자와 보조제보자의 심층 면담을 대상으로 주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 제보자와의 심층 면담은 24년 9월~11월 총 3회에 걸쳐 약 60분 내외로 실시하였다. 또한 보조제보자 3명과의 심층 면담도 24년 9월 11월 총 1~2회에 걸쳐 약 60분 내외로 실시하였다. 면담은 비구조화된 면담을 바탕으로 실시하였으며, 주 제보자에게는 선택과목 확장을 위하여 21년부터 24년까지 시기의 흐름에 따라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보조제보자에게는 주 제보자가 체육교과의 선택과목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떠한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기본으로 하여 시계열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휴대폰 녹음 기능을 활용하여 녹음하였으며, 인터뷰자료는 모두 전사 처리하여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된 자료는 심층 면담 자료이며, 2차 자료로서 이00 교사가 3년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문서자료, 사진 자료, 일지 등을 수집하였다.

## 3. 자료 분석 및 연구의 진실성

본 연구에서는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과 2차 자료로 수집된 자료들을 전사 작업을 실시하여 원자료화 한 후 Patton(1990)의 귀납적 분석을 바탕으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사된 자료와 2차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키워드를 부여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4가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로 자료 수집을 하는 다각도 검증(Triangulation)을 실시하였으며,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s)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전사 자료, 연구 결과의 범주화에 대한 내용들을 수시로 확인하며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포츠 교육학 교수 1명과 스포츠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 체육 교사 1명에게 도출된 결과를 제공하여 연구 결과에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가 포함되거나 왜곡된 내용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Lincoln & Guba, 1985),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동의서를 받았으며, 본인의 결정으로 언제든지 연구에서 빠질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학교의 상황 이해하기

2021년 A고등학교에 부임한 이00 교사는 2016년 교육부에서 진행한 체육 중점학교 매뉴얼 개발에 참여하며 체육 중점학교, 체육 중점 학급의 운영 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2016~2021년 B고등학교에 있으면서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통해 학생들이 체육 교과목을 추가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2021년 A고등학교에 부임 하면서는 교장선생님으로부터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받았고, 2021년부터 A고등학교의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학교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교과 부장을 통해 학교 상황 파악하기’, ‘학년 담임으로서 학년별 상황 이해하기’, ‘상조회 총무로서 교사들과의 관계 형성하기’를 통해 학교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가. 교과 부장을 통해 학교 상황 파악하기

학교에서는 각 교과를 대표하여 교과부장을 교과 교사들 중 1명의 교사가 맡게 된다. 교과부장은 교육과정 운영 편성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중학교에서는 대부분의 과목들이 정해져 있고, 선택과목이 많지 않아 교육과정 편성에 큰 역할을 하진 않는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공통과목 이외에 2학년부서는 대부분이 학생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기 때문에 교과별로 교과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00 교사는 21년에 A고등학교에 부임하면서 교과부장을 맡았다. 14년 차 교사이면서 고등학교 경력도 충분하고, 교육청 업무 지원 등 다양한 학교 안과 밖에서 역할을 경험했기에 선배 교사들도 이00 교사가 맡아주길 원했다.

이00 교사는 21년 부임한 후 교과부장으로 가장 먼저 한 것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살펴보았다. 2학년 사회과학계열에서의 선택과목 현황과 3학년 사회, 과학 계열 선택과목을 먼저 확인한 후 학교의 전체적인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22년, 23년에도 지속해서 교과부장을 담당하면서 체육교과의 다양한 과목들이 어떻게 하면 선택과목 중 하나로 포함되어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추가적으로 더 들을 수 있게 할지를 고민하며 연구하게 된 계기이자 체육교과의 선택과목 확장을 위한 시작이 되고 있었다. 또한 21년과 22년에는 확장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학교의 상황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선생님들에게 설득력이 있게 전달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21년부터 23년까지 3년 동안 교과부장을 했죠. 처음부터 체육도 선택과목 넣어주세요 하고 막무가내로 우길 수는 없으니까요. 전에 학교에서도 5년 동안 근무하면서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같은 체육교과 선생님들도 도와줘야 하고, 관리자분들도 관심이 있어야 가능한데, 전에 학교에서는 불가능한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A고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체육과였고, 교무부장님도 체육과, 나머지 체육 선생님들도 체육이 활성화되는 것이라면 적극 도와주시는 분위기여서 한번 준비를 해보아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과부장도 3년 동안 계속하면서 교과를 대표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체육 교과목을 학생들이 더 수강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주제보자 이00 교사와의 면담중)

이00 교사가 교과부장을 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젊기도 하지만 경력도 충분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어요. 박사과정까지 하면서 학교체육과 체육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제 위치가 교무부장이자보니 쉽게 체육교과의 확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뒤에서 조용히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마지막 24년 여름에는 배00 교사를 도와서 3학년에 선택과목이 추가될 수 있도록 저도 신경을 많이 썼죠.

(보조제보자 김00 교사와의 면담중)

#### 나. 학년 담임으로서 학년별 상황 이해하기

학교는 크게 부장 교사, 담임교사, 비 담임교사 3가지 부류로 구성된다. 부장 교사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12명의 부장 교사를 임면하여 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학급수가 작은 학교는 이보다 적은 부장 교사들을 임면하게 된다. 또한 학급을 운영하는 담임교사들의 업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장 교사도 아닌, 담임교사도 아닌 비담임교사로서 담당 부장을 도와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대부분 주요 업무 부장 교사들의 진행에 따라 움직이지만 실제적으로 담임교사들과의 관계 형성은 학교를 이해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된다. 이00 교사는 21년에는 1학년 담임교사로서 해야 할 역할을 했고 22, 23년에는 체육예술부의 비담임 교사로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새로 부임한 교사로서 11명의 담임 선생님들과 학년 부장님이 함께 사용하는 교무실에서 이00 교사는 다른 학급 담임들과 관계 형성을 먼저 이야기하며 학년 부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2월말 업무분장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업무인 학년부 생활지도 및 진로 진학업무 두 가지를 병행하였다. 담당업무가 생활지도이고 1~12반 중 8개 반을 지도하는 상황이다 보니 학급 담임들과 학급의 학생들에 관한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었고, 학년부 내에서 총무 역할을 맡아 학년부 회식 진행 등 굵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먼저 나서서 추진하였고, 그 결과 각 교과 선생님들과 교과의 상황 및 교과에서 선택과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1학년 내에서뿐만 아니라 각 교과에서 2학년, 3학년 담당 교과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기에 각 교과별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다. 또한 21년 1학년 담임 시절 함께 했던 선생님들이 22, 23년에 각 부서 및 타 학년 담임으로 업무가 변경되더라도 서로 편하게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사이가 될 수 있었던 점들을 이00 교사는 교과별 상황이나 학교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21년에 부임하고 나서 첫해에는 1학년 담임을 했어요. 처음부터 부서에서 비담임을 했던 학년부 선생님들과 친해지기 어렵고 많은 선생님들과 친해지기 어려운데, 첫해에 담임을 했던 게 3년 동안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담임하던 분들이 부장도 하고 3학년 담임도 하고 2학년 담임도 하게 되니 저는 그분들 통해서 각 부서별 상황이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으니까요. 담임하면서 사실 제가 일을 좀 많이 했어요. 다른 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도 하고, 부서 운영이나 생활지도나 힘들어하는 것들을 먼저 나서서 하려고 했으니까요. 그 덕분에 그분들에게 저의 이미지 그리고 체육 교사의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물론 회식 하면서요~

(주제보자 이00 교사와의 면담중)

#### 다. 상조회 총무로서 교사들과의 관계 형성하기

초, 중등학교에서 오래전부터 친목회, 상조회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학교 구성원들의 경·조사는 물론 새로 전입은 교사들의 환영회, 타 학교로 진출 가는 교사들의 환송회 등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교직원의 친목을 도모한다. 하지만 이00 교사는 과거처럼 이러한 행사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00 교사는 선배 체육 교사가 상조회 회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총무 역할을 맡아 각종 경·조사에 쫓아다니고 환영회 및 환송회 등 다양한 역할을 2년 동안 수행하였다. 21년에는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을 시기여서 전체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부서 별로 회식을 할 수 있도록 회식비 지원 등 별거 아닌 일이지만 선생님들이 받을 때 기분 좋고, 즐겁게 받을 수 있도록 봉투를 제작하거나 이벤트를 통해 전달하면서 학교 교사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2년에는 교육과정의 정상화되고 일상생활에서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자 환영회, 환송회 등 다양한 행사를 멋지게 준비하며 많은 선생님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었다.

과거에 비해 상조회가 약화되고 있고, 상조회 회장은 특히 누구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00 교사와 체육부장인 김00 부장 교사는 봉사과 희생 측면에서 2년간 상조회를 담당하였다. 역시나 상조회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로는 경·조사에 학교를 대표하여 방문하거나 행사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점들을 알면서도 2년간 상조회 업무를 맡아 진행하며, 학교의 많은 교사들에게 고마움의 인사, 감사의 인사 등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이00 교사는 21년 전입오고 난 이후 업무와 연관되지 않는 부서의 교사들과는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없지만 상조회 업무를 하면서 모든 선생님들을 각각 찾아뵙고 선물들을 드리거나 행사 진행의 설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제가 교무부장을 하다 보니 체육과의 부장님이 상조회 회장을 해주길 바랬고, 당연히 이00 교사가 상조회 총무를 함께 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00 교사가 항상 학교 일에 협조적이고 잘 도와주는 편이라 잘 해줄 것으로 믿었고요. 관리자분들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2년 동안 행사가 많이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매달 걷는 돈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선생님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 하는게 선배로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보조제보자 김00 교사와의 면담중)

상조회는 특히 누구도 안 맡으려고 해요 힘들고 해도 욕먹고 하니까요. 회장을 하라고 했으면 못 한다고 했을 텐데 체육부장님이 회장을 한다고하니 자연스럽게 제가 총무를 한다고 했죠. 결혼하시면 찾아가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장도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가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행사 준비도 많이 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추석 때 다 같이 모여서 밥도 못 먹으니 커피 기프트콘 카드를 1만원권 80장을 구매해서 예쁜 봉투에 모든 선생님들께 나눠줬었는데요. 엄청 감동 받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물론 80장 기프트콘 카드를 구입하기 위해서 세 군데 이상 가게를 돌면서 구입했던 건 아무도 모르지만요.

(주제보자 이00 교사와의 면담중)

## 2. 체육 교과의 영향력 키워나가기

2021년 부임한 후 이00 교사가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을 체육수업의 정상화였다. 정과 내 체육수업이 가장 기본적인기 때문에 기본이 잘 이루어져야 스포츠클럽, 여학생 체육 활성화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에 이00 교사는 선배 교사들과 함께 좋은 체육수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5명의 체육 교사 중 3명이 한꺼번에 바뀌는 상황이었고, 함께 부임한 2명의 교사 역시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긍정적이고 협조적으로 도와주셨다. 체육수업의 정상화를 바탕으로 A고등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시키기’, ‘주문형 강좌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수요 확인하기’, ‘체대 입시반 운영을 바탕으로 희망학생 확인하기’가 실천되고 있었다.

### 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시키기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학교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기였다. 하지만 이00 교사는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에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클럽을 준비하고 실천했다. 교내 스포츠클럽대회로서 학기 말의 시간을 활용하여 피구대회를 운영하였고, 2학기에는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스포츠클럽대회에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농구 챌린지, 줄넘기 챌린지 등 다양한 지역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였다.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는 코로나에서 벗어나 대부분의 교육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기에 학교스포츠클럽 지원단을 구성하여 학생 중심의 스포츠클럽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학교스포츠클럽의 만족도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급 담임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축구 리그전, 피구 리그전, 배드민턴 시합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응원하고 학급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였기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2022년 겨울과 2023년 겨울 열린 학급별 배드민턴 축제는 방송반의 협조를 얻어 0투브 온라인 실시간 중계까지 하여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교실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만 열렸던 지역교육청 스포츠클럽대회가 2022~2023년에는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며 축구, 농구, 피구, 탁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대표하여 출전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애교심을 기를 수 있게 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00 교사와 나머지 체육 교사들의 노력으로 학교에서 체육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1년에는 코로나 시기가 스포츠클럽대회를 제대로 못 했죠.. 그래도 온라인 스포츠클럽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 스포츠클럽 등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했어요. 22-23년에는 지역교육청 축구대회, 농구대회, 피구, 배드민턴, 탁구 등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고, 1등은 못 했지만 준우승 및 3등을 하며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던 것 같아요. (주제보자 이00 교사와의 면담중)

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급 축구대회, 농구대회, 피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정말 많은 행사를 체육과에서 준비해주셔서 학교 선생님들은 너무 감사해요. 사실 이런 대회들이 많고 에너지를 발산해야 스트레스도 덜 받고 학업에도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생활이 행복해야 공부도 재밌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21년에 새로운 체육 교사들이 많이오고 기존 2명의 체육선생님들과 협업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고 질 높은 수준의 운영을 해줬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체육 교사라 이야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이정도 수준의 퀄리티는 아니었거든요. (보조제보자 박00 교사와의 면담중)



그림1. 교내 스포츠클럽 대회 사진

### 나. 주문형 강좌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수요 확인하기

21년 학교의 상황을 살펴본 이00 교사는 22년부터 체육 교과와 관련된 교육 과정 클러스터 또는 주문형 강좌를 운영하고 싶다고 관리자분들과 담당 부장교사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미 주문형 강좌가 심리학 과목이 운영되고 있고, 교육과정 클러스터로 주변 학교와 함께 과학과제 연구 과목이 운영되고 있음을 안내해 주셨고, 두 가지 방안 중 어떻게 운영하고 싶은지만 결정하라고 하셨다. 교육과정 클러스터는 인근 학교와 운영하는 대신 본교 학생들의 수강인원을 제한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주문형강좌는 본교 학생들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에 A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22년 첫 학기에 체육전공 실기 기초 과목의 수강 신청 인원은 3학년 7명, 2학년 10명 총 17명이 신청하였고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2학기에 추가 신청 인원이 생겨 3학년 7명과 2학년 13명 총 20명으로 운영하였다.

학교에 스포츠 관련 주문형 강좌가 생김으로써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기부에 체육과 관련된 과목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었고, 관련된 세특 및 활동들을 바탕으로 진학지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심은 2023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23년에는 신청 인원이 너무 많아 분반을 하여 2개 과목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였다. 화요일에는 체육 전공 실기 심화 과목으로 1, 3학년이 20명 참여하고 수요일에는 2, 3학년이 스포츠경기 체력이라는 과목으로 18명이 참여 하였다. 이처럼 관련된 과목이 개설된 후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로 주문형 강좌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주문형 강좌는 정규 교육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을 받아 운영되고 있었고,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수업을 운영할 수 없기에 장기적으로는 선택과목이 필요하다는 점들을 학교 측에 계속 이야기하며 운영하였다. 이처럼 이00 교사는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희망하고 있는 과목이라는 점들을 바탕으로 2, 3학년의 교육과정 중 선택과목으로 체육 교과 관련 과목을 추가로 넣기 위한 과정으로서 준비하고 있었다. 이처럼 2년간의 과정들을 토대로 학교의 교사들은 체육 교사들의 노력으로 진로 진학도 지도하고, 체육 관련 주문형 강좌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들로 전환되고 있었다.

주문형 강좌 운영 사실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라 다른 교과에서는 잘 안하려고해요. 그런데 체육과에서 한다고하니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한 두번 하다가 안하겠지 싶기도 했구요. 그런데 체육과 선생님들이 수업을 운영하고,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걸 보면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걸 알았어요. 이런 주문형강좌 운영 때문에 저희학교를 오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학교 홍보도 되는거니까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의 흥미과 선택권을 주고 있는 거니까요.

(보조제보자 박00 교사와의 면담중)

주문형 강좌가 잘 운영되면 이걸 바탕으로해서 체육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있다는 점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22-23년 운영하면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체육관련 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도 알게되었어요 다른 교사들도 이런 부분은 다 공감했거든요. 특히 23년에 반이 2개가 개설되서 애들이 방과후에 주문형강좌 수업을 듣는 걸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애들이 학원가서 진학지도 준비하는게 아니라 학교에서 진로를 준비하고 진학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애들도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많이 가지더라고요.

(주제보자 이00 교사와의 면담중)

#### 다. 체대 입시반 운영을 바탕으로 희망 학생 확인하기

이00 교사가 세 번째로 노력한 테마는 공교육에서 체육 계열 입시 진학지도를 실시한 것이었다. 흔히 이야기하는 체대 입시를 학교에서 준비시켜 준 것이었다. 21년 겨울부터 시작하여 23년 겨울까지 진행하였고, 22년도에 7명의 학생중 3명의 학생이 체육관련 대학에 진학하였고, 특히 1명의 여학생은 주문형 강좌, 체대 입시반 등 다양한 학교 체육프로그램 관련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시로 서울의 A여자 대학교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22년 고3 7명, 고2 8명의 적은 인원으로 시작되었다. 주문형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 중 체대입시반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아직은 운동보다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23년도 고3 때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1년 겨울부터 23년 겨울까지 진행된 체대 입시반은 학생들이 수강료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될 수 있었다. 코로나 이후 교과 보충 프로그램의 예산이 각 학교별로 지원이 되었는데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수요가 많고 활발하게 운영되는 체육교과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줘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할 수 있었다. 체대 입시반은 주문형 강좌가 운영되는 화요일, 수요일을 제외한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진행되었고, 이00 교사가 주로 운영을 하였으며, 운동부 출장 등으로 수업이 어려운 경우 다른 선배 체육 교사들이 보강을 해주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22년 7명중 3명의 학생이 합격한 후 23년에는 학교에서 체대 입시반을 준비한 14명의 학생 중 총 11명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결과를 얻었다. 서울권의 주요 대학 및 체육 교육과, 스포츠마케팅 관련 다양한 학과로 진행하여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환경을 만들어주었다는 점에서 공교육에서의 체육 계열 진로 진학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00 교사의 노력은 학교에서 체육 계열 입시를 지도하면서 상담도 진행하였고,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고 방학 및 방과후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과 함께 동거 동락하며 보낸 시간들의 결과였고, 학교 측에서도 이런 이00 교사의 노력에 대한 지원으로 고가의 다양한 전자 측정 장비들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협조 해주었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 운동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대입시반은 이00 교사가 학교를 떠난 2024년도 후임 교사였던 배00 교사에게 인수인계를 하였고, 배00 교사의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00 교사의 이러한 진로진학을 위한 노력과 학생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추가적으로 체육교과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향에서 준비하고 있었다.

체대입시반을 혼자 운영하기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출장을 가거나 일이 있으면 선배교사들이 잘 도와 주셨던 부분들도 있었구요. 애들이 대학가보겠다고 열심히 운동하며 공부하는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건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년동안 잘 운영해서 좋은 성과도 나왔구요. 제가 떠난 24년도도 배00 교사가 이어서 잘 운영해주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학교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주시니 예산확보 측면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각 대학에서 사용하는 멀리뛰기, 왕복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등의 전자측정장비를 구입해서 연습하니 애들의 만족도는 좋을 수 밖에 없었죠.

(주제보자 이00 교사와의 면담중)

이00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체대입시반을 운영 하는게 쉽지 않을거 라고는 생각했어요. 그나마 정말 다른 체육선생님들도 잘 도와주시고, 주문형강좌도 잘 운영되고 있고 하니 부담이 덜했어요. 특히 이00 선생님이 학교를 떠났지만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어떻게 지도해야하는지 같이 고민 해주시니 좋았죠. 저도 체대입시를 해서 대학을 갔지만 예전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저도 입시를 공부해야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더라구요. 힘들긴 하지만 애들이 대학가서 행복한 대학생활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려고 하고 있어요. (보조제보자 배00 교사와의 면담중)



그림 2. 체대입시반 운영 사진

### 3. 체육 교과를 선택과목으로 넣기 위한 발버둥

결과 1, 2의 과정들을 바탕으로 이00 교사는 23년 봄부터 적극적으로 2, 3학년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중 체육 교과목을 넣는 방안을 제시하기 시작하였으며, 23년 가을까지 지속적인 회의 과정을 통해 선택과목으로 넣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이00 교사의 노력은 결과적으로는 선택과목을 추가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돌아왔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선택권과 학습권 기회 보장’, ‘필요한 건 알지만 우린 허용할 수 없네요’ 라는 범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한다.

#### 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선택권과 학습권 기회 보장

22년과 23년 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 형성들을 바탕으로 이00 교사는 23년 봄부터 24년 교육 과정 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육교과 관련 선택과목을 2, 3학년에 추가하는 안건을 건의하였다. 이미 주문형 강좌를 통해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 30명이 넘는 학생들이며, 체육과 관련된 진로 또는 사관학교, 경찰, 소방 등의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체력 관련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의도였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현재의 상황에 공감하고 좋은 안건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경기도의 경우 23년 1학년 학생들부터 고교학점제를 적용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있었기에 충분히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반대로 체육교과가 선택과목으로 추가하여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나는 다른 교과 선생님들의 걱정은 당연히 있었다. 기존에는 체육이 선택과목에 없었지만 체육 과목이 탐구 과목들과 함께 속한 영역에서 선택해야 하기에 학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게 될 경우 탐구 과목의 선생님들의 교원 소요 및 수급과 관련 되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00 교사는 학생들에게 홍보를 할 때 단순히 체육을 즐기는 목적이 아니라 2시간을 연장 수업을 하며 체력 훈련 및 지구력 훈련 등 힘든 수업이 될 것 이라는 것을 안내하고, 사전 면접을 통해 1반만 구성할 것을 이야기하여 2학년에 1반, 3학년에 1반 정도를 구성할 것을 이야기하며 설득하기 시작하였다. 회의는 5월, 6월, 7월, 9월 총 4번에 걸쳐 진행되었고, 이00 교사는 5월부터 지속적으로 선택과목 안에 체육 교과목도 넣어서 학생들의 선택권과 학습권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교육과정 부장으로서 2, 3학년에 과목을 개설하여 1개 반 정도의 인원만 구성한다면 교원 수급하고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서 이00 교사에게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함께 이야기 하긴 했어요. 학생들의 선택권을 줘야 하고 배우고 싶은 과목을 수강 하는게 취지에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2 외국어 과목이라던지, 사회, 과학 탐구 과목의 선생님들은 1개 반이라도 줄어드는 걸 걱정 하시더라구요.. 사실 이미 사회, 과학 과목들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도 조율하다 보면 수업시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있거든요.

(보조제보자 박00 교사와의 면담중)

처음부터 여러 반을 개설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2학년, 3학년에 1개반씩 만 25명 내외로 운영하면 교원 소요나 시수 문제에 있어서도 전혀 걱정을 안 할 것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강하게 밀어 부쳤죠. 1,2차 회의에서는 다들 공감은 해주셨어요. 그런데 3,4차로 가면 갈수록 반응이 좀 이상해 지더라구요.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뭔지? 학생들의 선택권과 학습권의 기회를 줘야하는게 학교아니냐고... 이야기를 계속했고, 다른 부장님들에게도 계속 어필을 했어요. 했거든요.

(주제보자 이00 교사와의 면담중)

#### 나. 필요한건 알지만 우린 허용할 수 없네요.

2년간의 준비 4개월간의 교육 과정 협의회 결과 24학년도 2, 3학년 교육과정에 체육교과목 관련 선택과목을 추가하는 것은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엔 아이들은 체육을 좋아 할테니 체육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탐구과목, 외국어 교과의 선생님들은 수업시수가 부족하여 티 오감이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체육관련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이 많다는 점도 공감하고 주문형 강좌를 계속 지속하기도 어려우며, 체대입시반을 운영하며 학교에서 체육 계열 진로 진학을 준비해주는 체육과 선생님들에게 감사하지만 교육과정 내에 체육 교과목을 추가로 개설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00 교사는 교육 과정부장의 도움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의견도 제시하였지만 그렇게 될 경우 선택과목으로 포함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았는지 다른 교과의 교육과정위원회 위원들은 그조차 반대하여 결국엔 교육과정 위원회의 익명 투표를 통해 찬반이 결정되었고, 결국엔 추가로 선택과목을 넣는 것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허무했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미안하다였어요. 학교에서 안해줘도 어차피 학원가서 잘하지 않냐는 이런얘기도 하시더라구요... 본인들의 자식들이었으면 그렇게 생각했을까? 싶었어요. 근데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교육

과정 편성에서 화두로 한번 던져 졌으니 24년도에 한번 더 도전해서 25년 교육과정에는 꼭 선택과목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다짐도 했고,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고민도 하게되었어요. (주제보자 이00 교사와의 면담중)

#### 4. 못 이룬 확장의 꿈을 후배 교사와 함께 실천하기

24년 이00 교사는 개인적인 일로 학교를 옮기게 되었다. 하지만 이00 교사 대신 부임한 배00 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체육 교사였고, 자신의 업무를 잘 이어서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충분히 역량이 있는 교사였기 때문에 배00 교사가 이00 교사를 이어서 주문형강좌, 체대입시반, 운동부 등을 담당하며 25년도 교육과정에 꼭 체육교과를 선택과목으로 추가하여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선택과목 다시 도전하기’, ‘한번의 실패 그리고 두 번 째 도전의 성공’이라는 내용이 전개될 수 있었다.

##### 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을 통해 선택과목 다시 도전하기

21~23년까지 이00 교사의 노력으로 선택과목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은 24년 이00 교사가 아닌 배00 교사의 노력으로 다시 한 번 시작되었다. 이00 교사의 갑작스런 이직으로 인해 배00 교사가 A고등학교로 오게되었고 기존의 교무부장이었던 체육 교사와 나머지 체육 교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선택과목에 체육교과를 넣기위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다. 업무의 인수 인계 과정에서 이미 배00 교사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3월부터 수시로 배00 교사와 소통하며 운동부 업무, 주문형강좌 업무, 체대 입시반 업무, 스포츠클럽 업무 등을 서포트 하였다. 학교의 교육과정 부장님은 기존의 부장님이었고, 변화된 것은 교장선생님이 새롭게 바뀌셨다는 점이였다.

배00 교사는 교과부장을 담당하며 4월부터 있던 2025년 교육 과정 편성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였다. 다행히 교무부장이었던 김00체육 교사의 도움으로 체육 교과의 선택과목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 질 수 있었고, 교과부장인 배00 교사는 작년에 있었던 경험들을 이00 교사에게 들었기에 상황을 파악해가며 차분하게 체육교과를 선택 과목으로 추가하는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4, 5월에 있었던 회의에서 23년과 동일하게 긍정적인 반응들로 모든 교과 부장들이 협조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고, 배00 교사는 각 교과 부장들에게 22년, 23년의 체육관련 입시결과 등을 어필하며 교과로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들을 강조하였다. 6월 회의를 바탕으로 7월 여름 방학 전에는 고1, 고2학생들이 25년 선택과목을 1차 선택하는 과정이 있기에 6월에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들을 배00 교사는 알고 있었다. 이00

교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준비하며 진행했기 때문이다. 6월 3차 회의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타 교과에서의 반대로 인해 체육을 넣으면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번엔 배00 교사와 교무 부장이었던 김00 교사의 의견을 계속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동안 체육교과 관련 과목을 수강하길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들도 지속되고 있었고, 23년 추진했던 것처럼 단순히 운동을 좋아해서 체육을 추가로 선택하여 듣는 것이 아닌 진로와 연계하여 정말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다시 한 번 도전하고 있었다.

이00 선생님에게 정말 많은 의견을 들었어요 조언도 많이 받았구요. 어떻게 준비해서 교과부장 회의에서 이야기 해야할지 고민도 하고 교무 부장님하고도 많이 이야기 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저도 꼭 도전해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은 원하는 걸 교사들이 본인들의 수업시수 때문에 개설을 반대한다는 점들은 너무 아쉬웠거든요. 아무튼 4월에 회의를 가서 이야기하면서 교육과정부장님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듣고, 저 스스로도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보조제보자 배00 교사와의 면담중)

제가 못한 걸 꼭 24년에는 이루길 바라고 있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체육 과목을 추가로 듣는 학교들이 많지 않다는걸 잘 알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알려져서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들을 꼭 실천하고 싶었는데 배00 교사가 제 뜻을 잘 받아줘서 추진하는걸 보고 올해는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제보자 이00 교사와의 면담중)

#### 나. 한 번의 실패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의 성공

24년 7월 이00 교사는 배00 교사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다. 배00 교사는 2,3학년에 모두 선택과목을 넣는 것으로 4월부터 이야기하였고, 6월까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지 않아 결국엔 교장선생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교장선생님은 2, 3학년 두 개 학년에서 시작하는게 부담 될 수 있으니 올해는 우선 내년에 고3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체육 과목을 2학점으로 개설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해보자고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전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교무부장의 역할도 크게 작용하였는데 타 교과 선생님들의 반대 의견과 걱정스러운 인식을 해보지도 않고 반대만 하지말고 한 학년이라도 운영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차 년도에는 운영하지 않는 방안들을 그때 고민해 보지 않겠냐는 의견으로 다른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음

을 배00 교사는 이야기하였다.

결과적으로 이00 교사가 2021년부터 3년간 준비했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체육 교과를 추가로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에 넣는 방안은 2024년 7월 결정되어 2025년부터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듣는 2학점 이외에 추가로 체육수업을 2학점 이수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은 탐구과목 중 본인이 수능을 보지 않는 과목, 관심이 없는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듣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고 체육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체육 과목을 추가로 이수한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돼 가는 부분이었다. 배00 교사는 선택과목 개설로 인해 수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학생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타 교과에서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과 기대를 하고 있었다.

‘이00 선생님에게 형! 내년에 우선 고3 애들 대상으로 체육 과목 추가로 개설하기로 했어요!’ 라고 할 때 정말 뿌듯했어요. 이00 선생님이 하고자 했던걸 계속 실패했다면 저 스스로도 이00 선생님에게 미안했을꺼예요. 교장선생님도 마지막에 힘든 결정을 해주셔서 25년에는 고3애들이 추가로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되니 책임감이 더 높아진 것 도 있어요. 잘 운영해야 앞으로도 계속 진행 될 수 있으니까요.

(보조제보자 배00 교사와의 면담중)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지 않으니 결국엔 교장선생님이 결정 하는데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교장선생님은 2, 3학년 두 학년 운영하기보다는 우선 내년에는 고3만 먼저 해보자고 해주셨어요. 사실 저도 그 결정에 대해서 기뻐했어요. 어찌되었든 다른 학교와 차별성이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 하는거니까요. 학교에 체대를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본인들하고 관심도 없는 과목을 선택해서 그 시간을 의미없이 보내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는게 중요하니까요.

(보조제보자 박00 교사와의 면담중)

제가 못한 걸 후배 교사가 노력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아직 25년이 아니니 시작은 안했지만 이런 시작을 하는데 4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후련했어요. 이렇게 과목 하나 추가하는게 어려운건가? 이렇게해서 한 과목 추가되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과목을 추가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긴 했어요. 아무튼 배00 교사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주제보자 이00 교사와의 면담중)

## IV. 논의

### 1. 체육교과의 확장을 위한 체육 교사들의 관심과 노력

본 연구에서 이00 교사와 체육 교사들의 노력으로 선택과목이 확장될 수 있었던 사례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한 사례일 뿐이다. 반대로 체육 교사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관리자들의 의견,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으로 과목이 개설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과목이 추가로 개설되었을 때 목적에 맞게 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은 체육 교사에게 달려 있다(윤기준, 이주연, 2020).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꿈과 진로를 위해 본인의 적성과 관련된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교육부, 2021). 이러한 취지는 일부 과목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목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체육교과에서도 다양한 선택과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체육 교사들은 이런 점들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시수와 관련해서는 타교과 교사들과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점, 그리고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여 운영 할 경우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들로 인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클러스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거점학교 등의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추가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정길, 2024; 이의재, 2019; 장기영, 임유환, 최영래, 2024). 이러한 운영을 하는 이유는 학생을 위해서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수업을 공교육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비싼 돈을 들여가며 학원으로 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미 체육중점학교, 체육중점학급 등이 2010년 중반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여 전국에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공립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순환으로 인해 운영이 어렵다는 단점들이 나타나고 있다(윤기준, 이윤수, 2019).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공교육에서는 체육 진로 진학교육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미 공교육에서 체육계열 진로진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토대로 학교현장에서 어떻게하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사례 연구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김준형, 박정준, 2019; 이해란, 정용철, 이의재, 2023).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체육 교사들의 노력과 열정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에 무시당하고, 배제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노력으로 공교육에서 체육진로진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한 체육 교사의 오랜 기간 동안 체육교과의 선택과목 확장을 위한 노력을 통해 1과목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를 보여줬다. 시작은 미약하나마 끝은 장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처럼 이러한 작은 사례들 하나 하나 모인다면 다른 많은 인문계 고등학

교에서도 체육 교과목을 추가로 선택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체육 교사들의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 2. 고교학점제의 기회를 발판으로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 보장하기

2025년에 입학하는 고등학생들부터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적용되어 이수해야 할 단위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어들어 학습의 적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다(교육부 2021).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길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희망하는 모든 과목들이 개설되기에는 쉽지 않은게 학교 현장이다.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고서라도 학생들에게 학습권과 과목의 선택권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고교학점제의 적용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방향은 윤기준, 이주연(2020)의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학생 선수들을 양성하는 체육고등학교의 경우 전문교과 운영이 자연스러웠지만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전문교과를 추가로 운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들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반대로 이주연 등(2021)의 연구에서는 체육고등학교보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도 체육계열 전문교과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미 많은 학교들에서도 체육교과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은 다양하게 보장되어야 하는게 고교학점제의 취지이자 방향일 것이다. 이상은, 백선희(2019)의 연구에서도 고교학점제 정책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과목들에 대해서 만족도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김동욱의(2019)의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자신의 진로를 위해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이러한 선택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서 최대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주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과정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선택과목을 확장하기 위하여 체육 교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떠한 과정을 바탕으로 선택과목이 확장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의미있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처럼 선택과목을 1개 추가하는데도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과목을 추가한다고하여 체육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의 선택권을 위한 과정에서 교사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점들을 보여주는데 의미를 두고 싶다. 하지만 체육교과에서는 선택과목 운영과 관련하여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선행연구도 있다. 정현철, 이기대(2022)의 연구에서는 선택과목 구성을 위한 과정에서 학생 선택 중심이 아닌 학교 선택에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언급하였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올바르게 정착하고 그 과정 안에서 체육교과도 함께

효과적인 운영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체육 교사들의 노력과 열정뿐만 아니라 각 학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부장 교사들과 교감, 교장 등 관리자들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고교학점제의 다양한 사례들도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교육과정 부장을 담당하던 박00 국어 교사가 긍정적인 체육 교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지지가 있었기에 체육 교과목을 추가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 2025년을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를 적용하며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육교과의 선택과목 확장을 위한 다양한 사례들이 공유되어 체육 교과목도 추가로 과목을 개설하여 전국의 어떤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체육 교과목을 추가로 수강할 수 있다는 사례들이 공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체육교과의 선택과목 확장을 위한 체육 교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1. 학교의 상황 이해하기’, ‘2. 체육 교과의 영향력 키워나가기’, ‘3. 체육 교과를 선택과목으로 넣기 위한 발버둥’, ‘4. 못이룬 확장의 꿈을 후배교사와 함께 실천하기’라는 주제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체육교과의 확장을 위한 체육 교사들의 관심과 노력’, ‘고교학점제의 기회를 발판으로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 보장하기’라는 주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제언을 3가지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고교학점제는 한과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학생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과목을 수강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일부 연구학교, 시범 학교는 많은 예산을 바탕으로 운영되기에 조금더 나은 환경에서 운영되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운영되는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만족도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체육교과의 고교학점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많은 학교들이 벤치마킹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들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고교학점제에서 체육교과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체육 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고교학점제에서 체육교과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현장 교사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분석하여 지원 해줄 필요가 있다.

※ 논문 투고일: 2025. 1. 14.    ※ 논문 수정일: 2025. 3. 19.    ※ 게재 확정일 : 2025. 3. 21.

## 〈참고문헌〉

- 고정길(2024).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체육계열 전문교과 운영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교원교육**, 40(5), 187-208.
- 교육부(2021).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2021. 2. 26.
- 김동욱(2019).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선택 교육과정 편성의 실제 및 학생 선택 경향성 분석. **교육과정연구**, 37(2), 131-157.
- 김성천(2021). 고교학점제의 쟁점과 과제 분석. **교육비평**, 48, 32-63.
- 김준형, 박정준(2019). 체육계열학과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사례연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3(4), 17-32.
- 김영은, 허예지, 백경선(2023).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과 경향 분석. **중등교육연구**, 71(2), 179-207.
- 김은미, 임영근, 이순범(2024). 고교학점제에 따른 일반고 학생 과목 선택에 대한 만족도 분석. **사고개발**, 20(3), 1-20.
- 김재호, 최대혁, 이의재(2020). 방과 후 체대입시 프로그램 지도 교사의 진학 지도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9(6), 177-196.
- 안영은, 노혜림, 이수민, 양성관(2023).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 분석: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50(1), 31-59.
- 유창완(2020). 고교학점제에 따른 체육과 선택과목 개발 연구. **교과교육학연구**, 24(4), 361-372.
- 유창완(2021).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교원교육**, 37(4), 81-105.
- 윤기준, 이윤수(2019). 체육중점학교 운영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체육과학연구**, 30(3), 555-571.
- 윤기준, 이주연(2020). 체육계열 전문교과 운영 양상 탐색.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6(2), 195-215.
- 이경진, 박창언(2020).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의 성과와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7), 1233-1253.
- 이광우(2018). 고교학점제 실행에 관한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요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2), 543-567.
- 이규일, 오정훈, 천항욱(2020). 진로교육 관점에서 본 체육중점학교 교육과정의 성과와 한계.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7(1), 71-94.
- 이상은, 백선희(2019).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시 과목 선택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과 요구. **교육과정연구**, 37(3), 79-105.
- 이상은, 장덕호(2019). 고교학점제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 나타난 쟁점과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4), 109-136.
- 이의재(2019). 체육교과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4(2), 89-104.
- 이주연, 최정순, 이민형, 유금복, 최성희, 윤기준, 김석영(2021). **고교학점제 대비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전무교과 구성 방안 연구**.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창현, 오정훈, 김택천, 이규일(2018). 체육중점학교 사업의 성과와 반성 : 세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5(4), 63-84.
- 이혜란, 정용철, 이의재(2023). 여자 고등학교 방과 후 체대입시 프로그램에 관한 사례연구.

**교과교육학연구**, 27(1), 88-107.

임유나(2019). 캐나다 온타리오 주 고교학점제의 특징과 학점제 기반 교육과정 재구조화에 주는 시사점.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2), 377-406.

장기영, 임유환, 최영래(2024). 체육거점학교 운영 현황 및 문제점 탐색. **한국체육정책학회지**, 22(4), 15-29.

정현철, 이기대(2022).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겪은 선택과목 운영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6(6), 51-64.

조보경, 김진숙, 이민형(2021). 고교학점제에 대한 해외 인식조사: 덴마크, 아일랜드, 스웨덴을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9(6), 249-274.

홍후조(2018). 고교학점제 도입의 문제와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 699-724.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Abstract〉

---

## A Case Study on the Expansion of Elective Subjects in Physical Education in General High School

---

Lee, EuiJae<sup>1</su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cess of expanding elective courses in a liberal arts high school based on the efforts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o expand the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To this end, High School A, which will be expanding its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from 2025, was selected as the subject of the study, and four teachers who worked or are working at the school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and the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inductive analysis metho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based on the following themes: '1. Understanding the school's situation,' '2. Growing the influence of the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3. Struggling to make physical education an elective course,' and '4. Practicing the dream of expansion with junior teachers. Based on these findings, we developed a discussion on the topics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interest and efforts to expand physical education courses' and 'Ensuring students' right to choose subjects by taking advantage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Based on the cases in this study, we concluded that students should be provided with the opportunity to choose and study various subjects related to physical education in order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Keywords** : High School Credit System, Physical Education, Electives, Physical Education Teachers

---

1. Assistant Professor, Seowon University, pelej@seowon.ac.kr